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38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7453	조지연의원	2025.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2212626	강대식의원	2025.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5.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 11. 24.)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u> 사람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1. ----- ----- <u>15세 이상 34세 이하인</u> ----- -----. <u>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